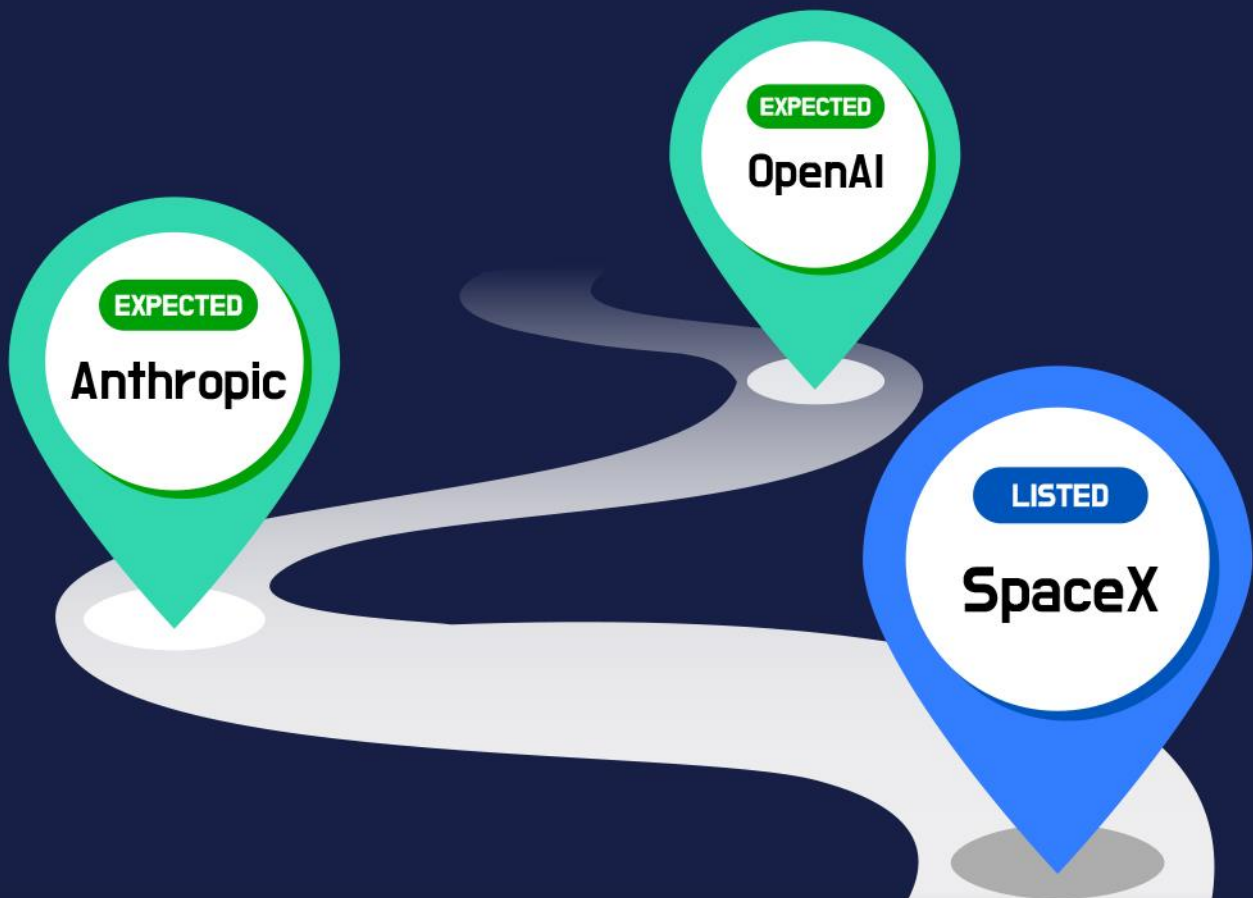




IPO 단계별 ETF 가이드

SPACE X AND NEXT?



목차

1. 메가 IPO 사이클	3
1) 산업 패러다임 전환기에 등장하는 메가 IPO	3
2) 메가 IPO에 대한 시장의 우려 점검	5
3) 메가 IPO 직전, Peer 그룹 내 자금 재배치 흐름 관찰	10
2. IPO 이벤트 활용 방법	11
1) 상장 전: 간접 투자 경로 찾기	11
2) 상장 후: 지수 편입 vs 락업 해제	17
3. ETF로 접근하는 메가 IPO	21
1) SpaceX	21
2) Anthropic & OpenAI	24

2026년 6월 24일 | Global Asset Research

Global ETF

Compliance Notice

본 조서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SpaceX, and Next?

IPO 단계별 ETF 가이드

IPO 시장에서도 확인되는 AI 영향력

AI 투자 사이클의 영향력이 유통시장을 넘어 발행시장까지 확장되고 있다. SpaceX, Anthropic, OpenAI의 합산 공모 규모는 약 2,000억 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2021년 연간 기록을 상회할 전망이다. 세 기업 모두 조달 자금의 사용 우선순위를 AI 인프라에 두고 있다. 시장에서는 초대형 IPO로 인한 수급 부담을 우려하고 있지만, 조달 자금이 AI 인프라로 투입되는 규모 그리고 상장 후 공개될 해당 기업들의 실적이 AI 투자 심리 전반에 미칠 영향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상장일만 기다리면 놓칠 수 있는 기회들

메가 IPO의 영향력은 여타 IPO와 달리 상장 과정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확인된다. 상장 준비 단계에서는 지분 보유 종목과 Peer 종목으로 투자 수요가 집중되는 흐름이 관찰된다. 지분 보유 기업 중에서는 시가총액 대비 지분 가치 비중이 높은 종목일수록 주가 탄력성이 높게 나타난다. Peer 종목은 대체 투자처로 선택받으며 상승세를 보이지만, 상장일에 가까워질수록 차익 실현 압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상장 이후에는 지수 편입과 락업 해제 등 수급 이벤트가 순차적으로 발생한다. 이처럼 시기별로 주목해야 할 대상과 대응 방식이 달라지는 만큼, SpaceX의 사례는 Anthropic과 OpenAI의 IPO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유의미한 기준이 될 수 있다.

ETF를 통한 IPO 이벤트 투자 전략

SpaceX는 현재 나스닥100 지수 편입과 락업 해제 등의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관련하여 우주 테마 ETF는 우주 테마 모멘텀을 함께 누릴 수 있지만 SpaceX를 높은 비중으로 편입하고 있어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는 구조다. 나스닥100 추종 ETF는 단계적으로 SpaceX 비중을 올려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 국내에서는 나스닥, 나스닥100 지수 추종 액티브 ETF들이 지수 편입에 앞서 SpaceX를 담고 있다.

AI는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다양한 종목군과 ETF가 존재하여 상장 기대감이 반영되는 경로가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 현 단계에서는 지분 보유 비중이 높은 종목 중심의 접근이 유효하다는 판단이다(Anthropic: KODEX 코리아소버린AI/TIGER 일본니케이225/ACE 일본NIKKEI225, OpenAI: KODEX 미국시테크TOP10/TIGER 미국시빅테크10AI 테마의 경우 IPO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어떤 경로로 기대감이 반영되는지에 따라 선택지가 좁혀질 수 있다. 한편 세 기업 모두 조달 자금의 상당 부분을 AI 인프라에 투입할 계획인 만큼, 반도체,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관련 ETF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alyst 장치영 chiyoung.jang@hanafn.com

1. 메가 IPO 사이클

1) 산업 패러다임 전환기에 등장하는 메가 IPO

AI 생태계 확산과 우주 항공 산업의 확장을 반영 중인 IPO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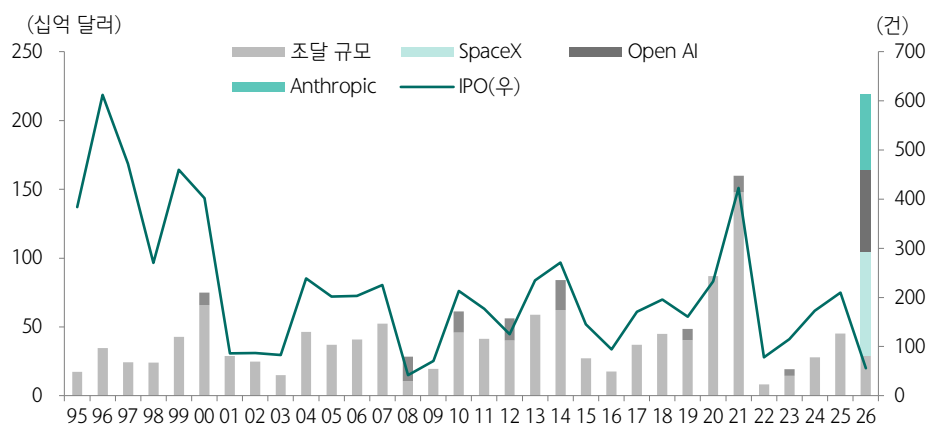
올해 미국 IPO 시장에서 조달되는 자금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IPO 시장을 주도하는 빅딜은 6월 12일 상장한 SpaceX와 상장을 앞둔 OpenAI, Anthropic이다. SpaceX는 75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에 성공했고, 상장 진행 중인 OpenAI와 Anthropic은 각각 6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확보가 예상된다. OpenAI와 Anthropic의 IPO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세 기업의 합산 공모 규모만으로도 역대 최대였던 2021년 미국 연간 IPO 공모 규모 1,600억 달러를 상회한다.

대규모 IPO의 등장은 산업 패러다임 전환기에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이다. 모바일 확장기에 상장한 페이스북은 약 160억 달러를 조달했다. 알리바바는 유통 산업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재편되던 시기에 약 218억 달러를 조달했고, 당시 미국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세 기업 모두 조달 자금의 상당 부분을 AI 인프라 구축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OpenAI와 Anthropic은 AI Capex 사이클의 핵심 고객이다. 매 분기 실적 시즌마다 시장이 빅테크의 Capex 전망치에 주목해 왔듯, 상장 이후에는 두 기업의 실적이 AI 랠리 향방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이번 IPO 이벤트가 수급 측면 외에서도 중요한 이유다.

올해 IPO 조달 규모는 2021년 기록을 상회할 전망

도표 1. 미국 연도별 IPO 조달 규모 및 건수 추이



주: 26년은 5월말까지 금액에 3개 종목 합산, 전통 IPO만 카운팅
 자료: FactSet, 하나증권

도표 2. 산업 패러다임 전환기별 주요 IPO

시기	주도 산업	주요 IPO
1990년대~2000년대	인터넷	Amazon('97), Alphabet('04), Salesforce('04)
2010년대 전반	모바일/SNS, 이커머스	Facebook('12), Twitter('13), Alibaba('14)
2010년대 후반~2020년대 초반	플랫폼, EV	Uber('19), Airbnb('20), Rivian('21)
2020년대 중반	AI, 우주	SpaceX('26), OpenAI('26E), Anthropic('26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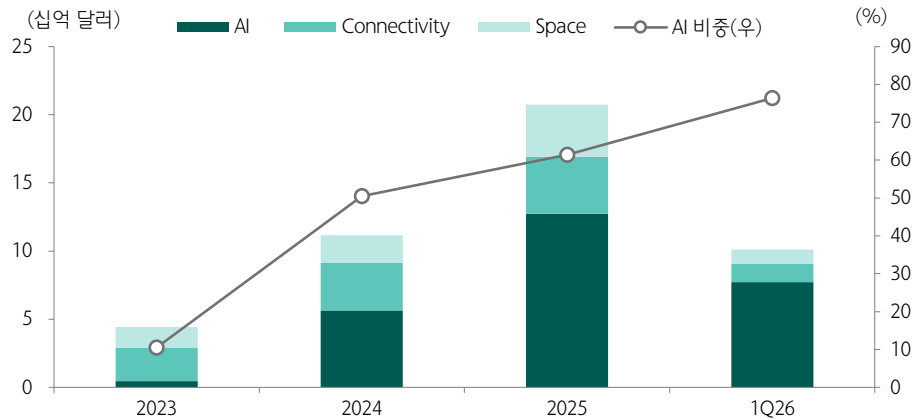
자료: 하나증권

도표 3. 역대 미국 IPO 조달 규모 상위 10건

기업	상장 시기	조달 규모(억 달러)
SpaceX	2026년 6월	750
Anthropic	2026년 하반기 예정	600(예상)
OpenAI	2026년 하반기~2027년 예정	600(예상)
Alibaba	2014년 9월	218
Visa	2008년 3월	179
ENEL	1999년 11월	165
Facebook	2012년 5월	160
General Motors	2010년 11월	158
Deutsche Telekom	1996년 11월	130
Rivian Automotive	2021년 11월	119

자료: Renaissance Capital, 하나증권

도표 4. SpaceX의 자본 지출 중 AI가 차지하는 비중은 76%까지 확대



자료: SpaceX, 하나증권

도표 5. SpaceX의 IPO 자금 활용 계획: AI 컴퓨팅 인프라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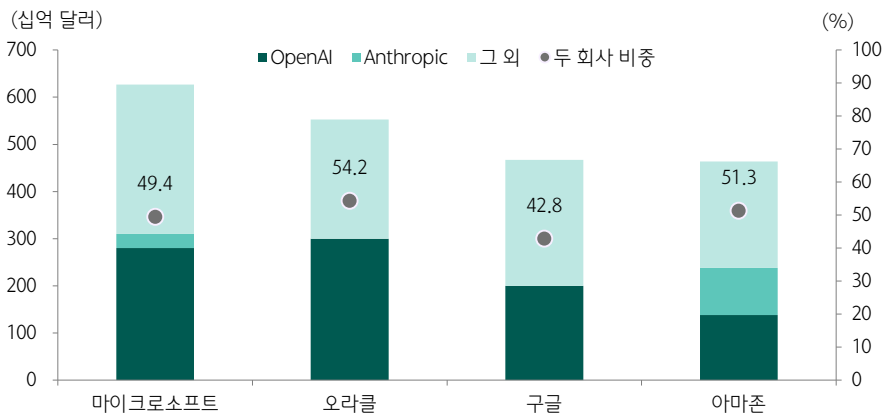
USE OF PROCEEDS

We expect to receive approximately \$ [redacted] of net proceeds from this offering (or \$ [redacted] if the underwriters exercise their option to purchase additional shares of Class A common stock in full), based upon the assumed initial public offering price of \$ [redacted] per share (which is the midpoint of the price range set forth on the cover page of this prospectus) after deducting underwriting discounts and commissions and estimated offering expenses payable by us. We intend to use the net proceeds from this offering to fund our growth strategy, including the expansion of our AI compute infrastructure, enhancements to our launch infrastructure and launch vehicles, increases in the scale and capacity of our satellite constellations, and any remaining amounts for general corporate purposes.

자료: SpaceX, 하나증권

도표 6. 주요 클라우드 업체의 수주 잔고의 50% 가량을 차지하는 OpenAI와 Anthropic

OpenAI와 Anthropic의
조달 자금도
AI 인프라 확장에
투입될 전망



주: 2026년 3월말 기준 추정치
자료: 언론보도 종합, 하나증권

2) 메가 IPO에 대한 시장의 우려 점검

(1) IPO 수급 부담은 분산되는 중

초기 자금 조달 규모는
과거 대형 IPO와
유사한 수준

시장 참여자들은 연이어 예정된 대규모 IPO로 인한 수급 블랙홀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영향을 점검해 보면, 수급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미국 주식 시장 시가총액에서 메가 IPO 3건을 포함한 올해 IPO 조달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0.29%로 2010년 이후 평균(0.23%) 수준이다. 개별 기업별로 보더라도, SpaceX 다음으로 큰 규모였던 알리바바의 당시 미국 시가총액 대비 조달금액 비중이 0.10%였으며, SpaceX, OpenAI, Anthropic은 각각 0.10%, 0.08%, 0.07%로 주식시장 전반에 미칠 수급 충격은 제한적이다.

상장 시기 조절로
투자 수요 분산될 전망

OpenAI와 Anthropic이 IPO 시기를 자발적으로 분산시키고 있다는 점도 수급 부담을 완화하는 요인이다. 양사는 6월 초 비공개 S-1 제출 사실을 밝히며 상장 절차에 착수했다. AI 인프라 구축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시장은 양사의 연내 상장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지만, Anthropic은 10월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OpenAI의 샘 알트먼은 "향후 1년 내" 상장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비슷한 시기에 대형 IPO가 진행될 시 투자 수요가 분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시기 조정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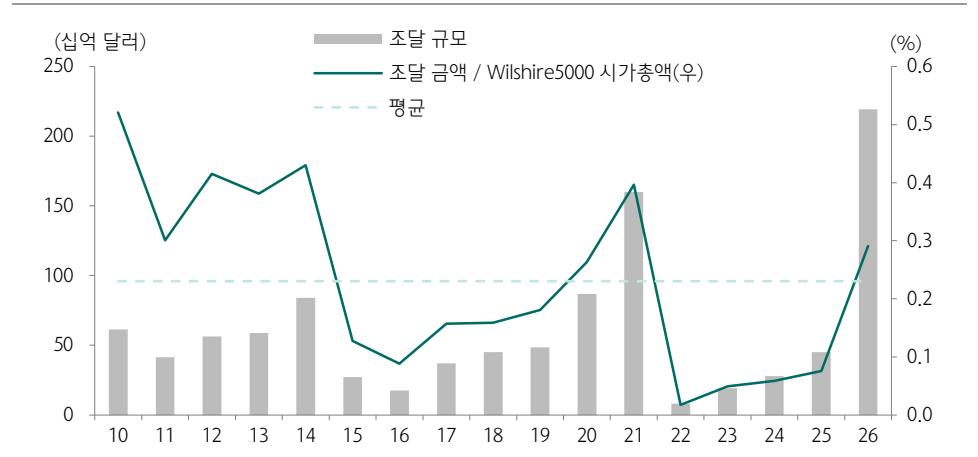
예측 시장(Polymarket)에서도 Anthropic의 10월 말까지 상장 확률은 69%인 반면, OpenAI의 연내 상장 확률은 48%에 그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세 기업의 IPO는 SpaceX(6월) → Anthropic(4분기) → OpenAI(2027년 이후)로 최소 3개 분기에 걸쳐 순차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개별 이벤트당 시장의 자금 흡수 부담은 분산될 전망이다.

락업 해제 구조에 따라
중장기 수급 영향은
단계적으로 확대

한편 IPO 시점의 자금 흡수 부담은 제한적이지만, 중장기 수급 영향은 해당 기업의 시가총액과 락업 해제 구조에 따라 단계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SpaceX의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1조 7,700억 달러로, 미국 시가총액 대비 2.39%에 달한다. 이는 과거 최대 규모였던 알리바바(0.79%)의 약 3배 수준이다. OpenAI와 Anthropic도 시장에서 예상되는 기업 가치를 고려할 때 각각 1.15%, 1.30%로 과거 대형 IPO를 크게 상회한다.

초기 유통비율은 SpaceX 4.9%(초과 배정 옵션 포함), OpenAI 7.0%, Anthropic 5.7%로 과거 대형 IPO(알리바바 13.0%, 메타 15.4%, 비자 42.5%) 대비 현저히 낮지만, 주요 지수 운영사들이 대형 IPO의 조기 편입을 위한 'Fast Entry' 규정을 도입하면서 낮은 유통비율에도 불구하고 상장 직후부터 패시브 매수 수요가 발생하는 구조가 되었다. 락업 물량이 단계적으로 해제되면서 유통주식이 증가하고, 주요 지수의 정기 리밸런싱 시점에 비중이 재산정되면서 수급 부담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각 기업별 락업 해제 일정과 지수 편입 타임라인에 따른 단계별 수급 영향에 대해서는 별도의 점검이 필요하다.

도표 7. 시장 전체 시가총액 대비 조달 규모 부담은 과거 평균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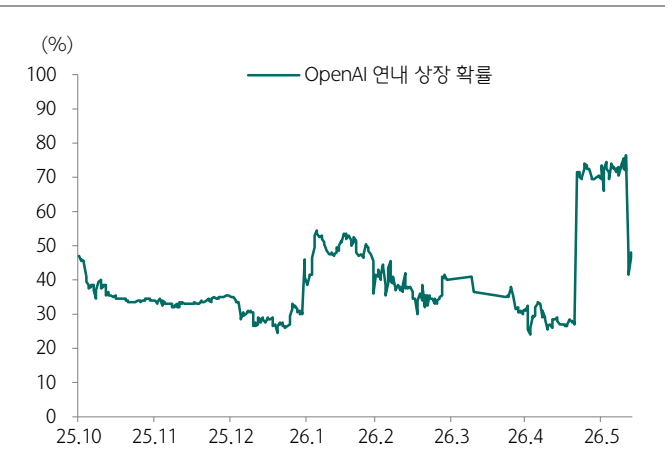
주: 2026년은 5월까지의 조달 규모에 SpaceX, Anthropic, OpenAI 합산한 수치
 자료: FactSet, 하나증권

도표 8. Anthropic의 IPO 상장 목표 시점은 10월

상장 완료 시점	확률	최근 변동
2026년 07월 31일 이내	2%	
2026년 09월 15일 이내	8%	▼26%
2026년 09월 30일 이내	16%	▼76%
2026년 10월 31일 이내	69%	▲25%
2026년 12월 31일 이내	90%	

자료: Polymarket, 하나증권

도표 9.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상승하고 있는 OpenAI IPO



자료: Polymarket, 하나증권

도표 10. 낮은 유통비율로 상장 직후 수급 부담은 과거와 유사한 수준

기업	상장시기	조달금액(십억 달러)	초기 유통비율(%)	거래소	나스닥 내 비중 (%)	S&P500 내 비중 (%)	Wilshire 5000 내 비중(%)
SpaceX	2026.06	75	4.2~4.9	Nasdaq	0.16	0.11	0.10
OpenAI	2026E	60	7.0	미정	0.13	0.09	0.08
Anthropic	2026E	60	5.7	미정	0.12	0.08	0.07
알리바바	2014.09	22	13.0	NYSE	0.30	0.12	0.10
비자	2008.03	18	42.5	NYSE	0.49	0.15	0.13
메타	2012.05	16	15.4	Nasdaq	0.34	0.13	0.11
GM	2010.11	16	33.2	NYSE	0.38	0.14	0.13
리비안	2021.11	12	17.6	Nasdaq	0.04	0.03	0.03

주: OpenAI, Anthropic 기업가치는 최근 투자라운드 기준이며 조달 금액은 언론에 발표된 목표치. SpaceX 초기 유통비율은 초과배정옵션 행사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자료: Factset, 언론보도 종합, 하나증권

도표 11. 증장기 수급 영향: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과거 대비 확대

기업	상장시기	상장 거래소	IPO 당시 시가총액 (십억 달러)	초기 유통비율(%)	나스닥 내 비중 (%)	S&P500 내 비중 (%)	Wilshire 5000 내 비중(%)
SpaceX	2026.06	Nasdaq	1,770	4.2~4.9	3.87	2.68	2.39
OpenAI	2026E	미정	852	7.0	1.86	1.29	1.15
Anthropic	2026E	미정	965	5.7	2.11	1.46	1.30
알리바바	2014.09	NYSE	168	13.0	2.33	0.92	0.79
비자	2008.03	NYSE	42	42.5	1.15	0.36	0.32
메타	2012.05	Nasdaq	104	15.4	2.23	0.84	0.74
GM	2010.11	NYSE	48	33.2	1.15	0.43	0.38
리비안	2021.11	Nasdaq	68	17.6	0.25	0.16	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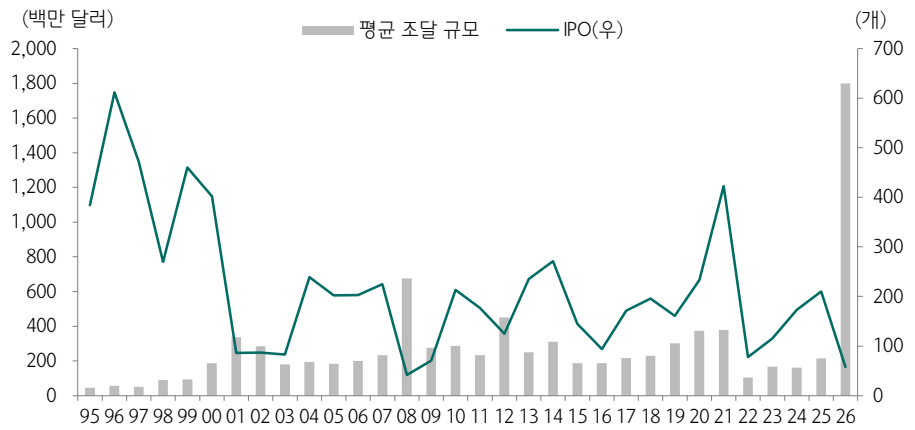
주: OpenAI, Anthropic 기업가치는 최근 투자라운드 기준이며 조달 금액은 언론에 발표된 목표치. SpaceX 초기 유통비율은 초과배정옵션 행사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자료: Factset, 언론보도 종합, 하나증권

(2) IPO 피크 ≠ 시장 고점

닷컴 버블 시기 대형 IPO 이후 약세장에 진입	<p>최근 AI 랠리와 관련하여 IPO 시장에서도 1990년대 후반 닷컴 버블과의 유사성이 부각되고 있다. 닷컴 버블 후기에 해당하는 2000년에는 IPO 조달 규모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대형 IPO가 집중된 점도 비슷하다. 1999년에는 ENEL이 당시 기준 역대 1위 규모로 상장했고, 버블의 정점이었던 2000년 4월에는 AT&T의 무선통신 사업부가 역대 3위 규모로 분할 상장을 단행했다. 시장이 과열되었던 국면에 대형 IPO가 증시 고점과 맞물려 이뤄졌던 것이다. 대형 IPO 이후 시장은 본격적인 하락세에 진입했다. 이러한 과거 경험으로 인해 이번 메가 IPO 사이클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과거 사이클과의 구조적 차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p>
이번 IPO 사이클은 AI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	<p>IPO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IPO 조달 규모의 확대 자체가 시장 과열의 반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현재의 상황이 시장 고점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지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 IPO 조달 규모가 정점을 기록한 9개 사례 중 12개월 후 하락을 기록한 것은 3건에 그쳤으며, 3개월 기준으로는 9건 중 7건에서 IPO 정점 이후에도 시장은 강세를 이어갔다. IPO 정점이 곧 시장의 고점을 의미하지는 않았다.</p> <p>대형 IPO에 나서는 SpaceX, OpenAI, Anthropic 등이 AI 인프라 투자의 핵심 주체라는 점도 중요하다. 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AI Capex에 투입할 예정이다. 현재 시장 랠리를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이 AI 인프라 투자의 수혜주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IPO를 통한 자금 조달이 오히려 AI Capex 사이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p>
과거와 달라진 IPO 기업들의 퀄리티	<p>이번 IPO 사이클에서 상장이 완료된 것은 SpaceX뿐이다. 현재 시장 예상대로 10월에 Anthropic, 내년엔 OpenAI의 대규모 IPO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면, 현 시점은 이번 메가 IPO 사이클에서 발행 피크의 시작점에 해당한다. 닷컴 사이클에서도 1996년과 1997년의 발행 정점 이후 S&P 500은 각각 12개월간 15.2%, 24.9% 상승했으며, 시장이 하락국면에 진입한 것은 사이클의 마지막 정점인 2000년에 이르러서였다.</p> <p>과거 IPO 발행 피크는 건수와 규모가 동반 확대되는 양상이었으나, 이번 사이클은 건수의 급증 없이 개별 기업의 평균 조달 규모가 커진 것이 특징이다. 사모자본 시장의 부상으로 기업들이 비상장 단계에서 다수의 투자 라운드를 거치며 기업가치를 검증받아 왔고, 그 결과 상장 시점에는 이미 대규모 자본 조달이 가능한 소수 기업 중심의 IPO 사이클이 형성된 것이다. 현 시점이 이번 메가 IPO 사이클의 초입에 해당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면, IPO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을 시장 고점의 신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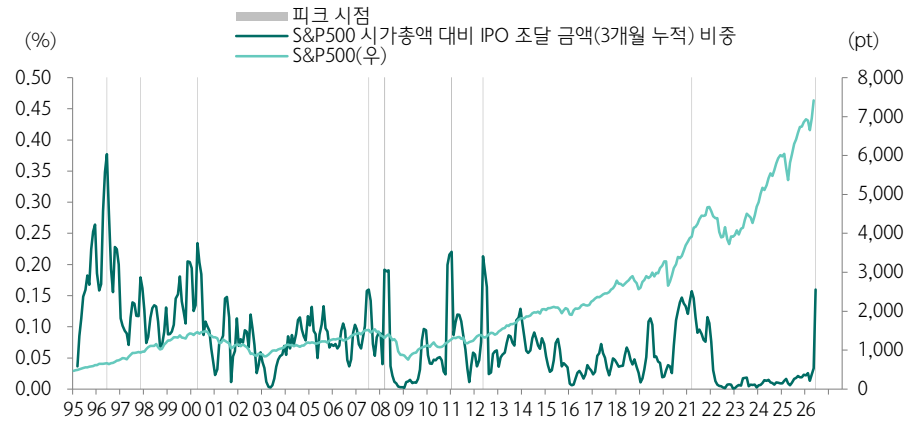
사모자본 시장 확대로
검증된 소수 기업 중심으로
IPO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

도표 12. 높아진 IPO 퀄리티: IPO 한 건당 조달되는 자금의 규모 확대



주: 2026년은 SpaceX까지 반영한 수치이며 스택 등을 제외한 전통적인 IPO만 집계
자료: Factset, 하나증권

도표 13. IPO 발행 피크 시점과 S&P 500 추이



주: 2026년은 SpaceX까지 반영한 수치
자료: Factset, 하나증권

도표 14. IPO 발행 피크 이후에도 시장은 상승세를 대체로 이어갔던 경험

IPO 정점 시점	당시 상황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1996.06	강세장	-0.85	2.24	5.76	15.24
1997.11	강세장	-1.12	9.55	14.99	24.86
2000.04	닷컴 버블	-4.84	-0.34	-5.25	-15.59
2007.07	글로벌 금융위기	-0.08	4.65	-6.22	-13.57
2008.03	글로벌 금융위기	2.88	-6.45	-16.95	-40.10
2011.01	유럽 재정위기	1.20	3.45	-4.83	1.60
2012.05	회복기	1.74	7.55	7.71	25.97
2021.03	강세장	5.26	8.29	9.63	14.99

주: IPO 정점 시점은 S&P 500 시가총액 대비 IPO 조달금액(3개월 누적) 비중이 12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한 시점(SPAC 제외)
자료: 하나증권

3) 메가 IPO 직전, Peer 그룹 내 자금 재배치 흐름 관찰

다만 IPO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Peer 종목들은
자금 재배치 가능성에 유의

IPO 이벤트가 시장 전반에 미치는 수급 영향력은 락업 해제와 지수 편입 시점에 단계적으로 가시화되는 것과 달리, Peer 그룹에서는 IPO 전부터 해당 이벤트의 영향력이 확인된다. Peer 그룹 흐름 분석이 용이한 Visa, Meta, 그리고 가장 최근에 상장한 SpaceX 세 사례를 점검한 결과, 로드쇼가 진행되며 투자자들의 청약 자금이 마련되는 D-20일 시점부터 주요 지수와 Peer 그룹의 주가 흐름에서 공통된 패턴이 관찰되었다. SpaceX와 Meta의 경우 상장 직전 S&P500과 나스닥100 등 주요 지수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으나, 사업 영역이 유사한 Peer 그룹은 세 사례 모두 상장 3~4주 전부터 부진한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다. 상장 당일에도 주요 지수 대비 주가는 부진했다.

이러한 패턴이 반복적으로 관찰된다는 점에서, 향후 Anthropic과 OpenAI가 상장할 때도 유사한 흐름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AI 익스포저 확보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종목군은 상장 가시화 시점부터 선제적 차익 실현 압력에 노출될 수 있다. AI 테마 ETF에 주로 편입되어 있는 C3.ai, BigBear.ai, SoundHound AI, Palantir 등이 해당되며, 양사와 동일한 IT 섹터 소프트웨어 & 서비스 산업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Salesforce, Adobe, ServiceNow, Oracle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도표 15. Visa 상장 전 Peer 그룹 주가 추이

	S&P500(%)	S&P 500 금융(%)	S&P 500 금융서비스(%)	S&P500 대비 Peer 성과(%p)
T-20	-2.15	-6.04	-7.87	-5.72
T-10	-0.22	1.33	0.76	0.98
T-5	1.68	2.84	2.71	1.03
T	-2.43	-2.02	-2.96	-0.53

주: T는 상장일이며 각 수치는 상장일 전일 대비 수익률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16. Meta 상장 전 Peer 그룹 주가 추이

	S&P500(%)	나스닥100(%)	SOCL(%)	XSW(%)	S&P500 대비 Peer 성과(%p)
T-20	-5.34	-6.24	-8.02	-5.76	-1.54
T-10	-4.69	-4.89	-7.08	-5.52	-1.61
T-5	-3.59	-4.09	0.71	-2.64	2.62
T	-0.74	-1.22	-6.75	-2.41	-3.84

주: T는 상장일이며 각 수치는 상장일 전일 대비 수익률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17. SpaceX 상장 전 Peer 그룹 주가 추이

	S&P500(%)	나스닥100(%)	XAR(%)	ARKX(%)	NASA(%)	UFO(%)	S&P500 대비 순수 우주 성과(%p)
T-20	-0.19	1.10	9.07	1.80	2.12	1.16	1.83
T-10	-2.45	-2.92	-1.25	-7.84	-12.27	-12.88	-10.12
T-5	0.14	1.69	4.34	1.20	7.97	4.00	5.84
T	0.50	0.64	-1.55	-1.94	-9.39	-6.99	-8.70

주: T는 상장일이며 각 수치는 상장일 전일 대비 수익률. S&P500 대비 Peer 성과는 ARKX, NASA, UFO 평균 수익률과의 차이를 의미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2. IPO 이벤트 활용 방법

메가 IPO 이벤트는 크게 상장 이전과 상장 이후, 두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상장이 가시화되는 시점부터 공모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IPO 관련 종목들에 대한 시장 관심이 높아진다. 상장 이후에는 IPO 종목 자체의 주요 지수 편입에 따른 패시브 매수 유입과 락업 물량 해제 등의 이벤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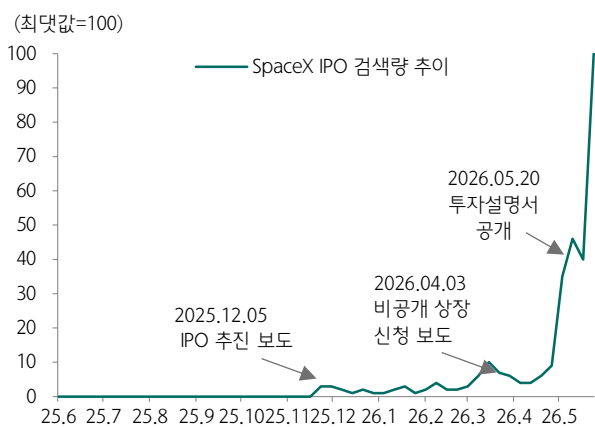
SpaceX는 초기 유통비율이 낮고 시가총액이 큰 만큼, 지수 편입과 락업 해제 이벤트 영향력이 클 가능성이 있다. Anthropic과 OpenAI도 예상 조달 규모와 상장 후 시가총액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이벤트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각 단계에 부합하는 과거 메가 IPO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이미 상장한 SpaceX와 향후 예정된 Anthropic과 OpenAI IPO에서 해당 이벤트들을 활용한 ETF 투자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상장 전: 간접 투자 경로 찾기

해당 시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메가 IPO 사례로는 가장 최근에 상장한 SpaceX가 있다. SpaceX는 비상장 상태에서 기업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은 만큼, 상장 가시화 시점부터 관련 종목들의 재평가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Anthropic과 OpenAI도 비상장 단계에서 자금 조달 라운드를 거치며 기업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 왔기 때문에, 상장 가시화 시점에 SpaceX와 유사한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해당 측면에서 SpaceX 사례 분석이 향후 두 기업의 IPO 이벤트 대응에 유의미한 기준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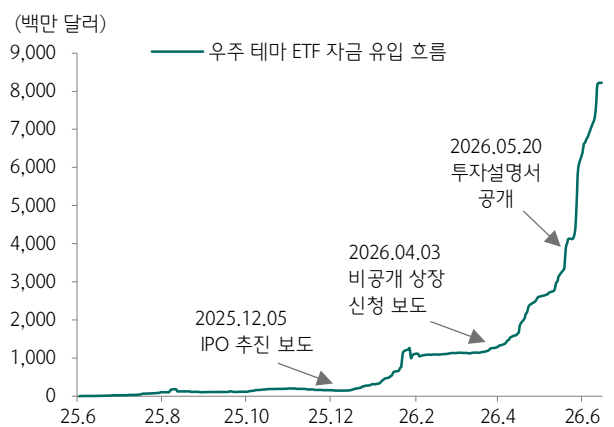
SpaceX IPO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본격적으로 높아진 시점은 상장 추진 보도가 이뤄진 2025년 12월 5일이다. 이후 2026년 4월 비공개 상장 신청 보도, 5월 투자설명서 공개를 거치며 관심도는 단계적으로 확대되었고, 관련 자금 유입 속도 역시 같은 흐름으로 가속화되었다.

도표 18. SpaceX 상장, 주요 이벤트를 기점으로 시장 관심 증가



자료: Google, 하나증권

도표 19. 동시에 자금 유입 속도도 빨라지는 모습



주: 미국, 한국 상장 우주 관련 ETF 누적 자금 유입액(신규 상장 ETF 포함)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상장 가시화 시점에 활용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은 1) 비상장 기업의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를 통한 간접 투자(지분 보유 종목) 2) 비상장 기업과 사업 영역이 유사한 종목 또는 관련 테마 ETF를 활용한 우회 투자(Peer) 3) 비상장 기업과 직접적인 매출 연관성을 가진 밸류체인 기업을 통한 투자 등이 있다. 세 가지 유형 모두 IPO가 가시화된 이후 시장 대비 큰 폭의 강세를 시현했다. 밸류체인의 경우 분석 대상 종목 수가 제한적이고 개별 종목의 이슈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IPO 이벤트 영향력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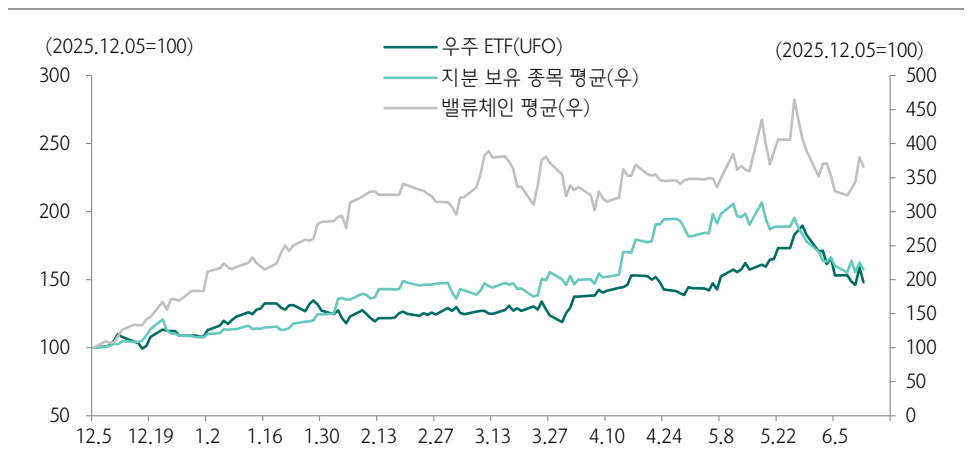
도표 20. 상장 과정에서 가능한 투자 유형

투자 유형		관련 종목
① 지분 보유	보유 지분 가치 상승에 따른 가치 재평가 기업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벤처투자, 에코스타, Alphabet
② Peer 그룹 (대체 투자 수단)	상장 전 대체 투자 수단	로켓랩, AST SpaceMobile, 인튜이티브머신스, 레드와이어 우주 관련 테마 ETF
③ 밸류체인	공급 계약 통한 직접 수혜	스피어, HVM,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STMicroelectronics

자료: 하나증권

도표 21. 투자 유형별 가격 추이

상장 가시화 시점 이후
IPO 관련 종목들은
상승세를 시현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지분 보유 종목: 지분 가치가 핵심 포인트

시총 대비 보유 지분가치
비중이 클수록
상승폭 확대되었던 경험

지분 보유 종목의 경우, 지분 보유 기업의 시가총액 대비 보유 지분 가치 비중이 클수록 상승폭이 확대되는 패턴이 확인된다.

미래에셋그룹은 미래에셋캐피탈이 조성한 펀드를 통해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벤처투자 등이 LP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SpaceX에 투자했으며, 미래에셋증권은 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평가이익이 1조 원을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동일한 그룹 차원의 투자였음에도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미래에셋벤처투자의 상승률이 미래에셋证권을 크게 상회한 점은, 시가총액 대비 지분 가치 비중이 상승폭의 핵심 요소임을 보여준다.

미국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난다. 에코스타는 2025년 9월 SpaceX와의 주파수 매각 거래를 통해 약 111억 달러 규모의 SpaceX 지분을 확보했다. 이는 당시 에코스타의 시가총액을 상회하는 규모다. 에코스타는 SpaceX 상장 보도가 본격화된 2025년 12월 이후 고점까지 +7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Alphabet도 SpaceX의 지분을 약 6.11%를 확보했으나 시가총액 대비 지분 가치의 비중이 낮았고, 그에 따른 프리미엄이 주가에 제한적으로 반영되었다. 지분 보유 여부보다 보유 지분이 해당 기업의 가치평가에 얼마만큼 반영될 수 있느냐가 주요 변수다.

지분 재평가는
투자설명서 공개 전후로
마무리되는 패턴

지분 보유 종목의 고점은 모두 5월 초~중순으로, 투자설명서 공개 시점(5/20) 직전에 집중되어 형성되었다. SpaceX 상장일보다 약 3~5주 앞선 시점으로, 투자설명서를 통해 보유 지분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면서 재평가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패턴은 Anthropic과 OpenAI 상장에도 적용해볼 수 있다. Anthropic의 경우 SK텔레콤이 국내 유일의 지분 보유 상장사로, 시가총액 대비 지분가치 비율이 18%에 달해 IPO 이벤트에 대한 주가 민감도가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반면 Amazon(5.5%)과 Google(3.0%)은 시가총액 대비 지분가치 비율이 낮아 지분 재평가에 따른 주가 민감도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OpenAI의 경우 국내 직접 지분 보유 종목이 부재하다.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SoftBank Group의 시총 대비 지분가치 비율은 44%로 양사 지분 보유 종목 가운데 가장 높아, 지분 재평가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날 종목으로 판단된다. Microsoft의 지분가치 비율은 7.9%이나, 시가총액(2.9조 달러) 규모를 감안할 때 재평가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도표 22. SpaceX 지분 보유 종목

종목	규모	시총 대비 지분가치 비중	상장 가시화 이후 고점까지 상승률	고점 시점	고점 이후 최대 낙폭
미래에셋벤처투자	소형주	높음	568%	5/18 (D-25)	-54.4%
미래에셋증권	중형주	높음	298%	5/6 (D-37)	-42.4%
에코스타	중형주	높음(약 29%)	73%	5/20 (D-25)	-19.5%
Alphabet	대형주	낮음(약 4%)	25%	5/13 (D-30)	-11.5%

주: 규모는 해당 기업이 속한 시장 내 기준이며 고점까지 상승률은 2025년 12월 5일 대비 상승률, D-DAY는 SpaceX 상장일을 의미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23. Anthropic 지분 보유 종목

종목	추정 지분율 (%)	지분 평가가치 (십억 달러)	시가총액 대비 비중(%)
SK텔레콤	0.3%	2.9	17.3%
Amazon	15~20%	145~193	5.1~6.8%
Zoom	0.1%	1.3	4.4%
Google	14%	135	2.9%
NVIDIA	2~3%	19~29	0.4~0.6%
Microsoft	1.5%	15	0.5%

주: 각 기업의 시가총액은 6월 19일 기준이며 지분율과 IPO 종목의 기업 가치는 2026년 6월 언론에 보도된 내용 바탕으로 추정
 자료: 언론보도 종합, 하나증권

도표 24. OpenAI 지분 보유 종목

종목	추정 지분율	지분 평가가치 (십억 달러)	시가총액 대비 비중(%)
SoftBank	12%	101	44.0%
Microsoft	27%	230	7.9%
Amazon	6%	51	2.0%
NVIDIA	3.5%	30	0.6%

주: 각 기업의 시가총액은 6월 19일 기준이며 지분율과 IPO 종목의 기업 가치는 2026년 6월 언론에 보도된 내용 바탕으로 추정
 자료: 언론보도 종합, 하나증권

Peer 종목: 테마 ETF 활용하기

메가 IPO가 섹터 전반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계기로 작용

메가 IPO 이벤트는 해당 기업이 속한 섹터의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IPO 과정에서 섹터 전반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상장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IPO 종목에 대한 투자 수요는 사업 영역이 유사한 상장 기업으로 이동하게 된다.

SpaceX 상장 이벤트도 우주 섹터 전반의 리레이팅 계기가 되었다. 우주 관련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으며, 관련 ETF로의 자금 유입도 동반되었다.

메가 IPO로 인한 섹터 자금 유입은 섹터 내 대형주에 그치지 않고 중소형 종목들까지 폭 넓게 확산되었다. 다만 우주 산업과의 연관성에 따라 상승 강도는 차별화되었다. 우주 발사체 기업인 로켓랩은 SpaceX 상장 가시화 이후 약 200% 상승했으며, 우주 인프라 기업인 인튜이티브 머신스와 레드와이어 등도 같은 기간 300%대 수익률을 기록했다.

반면 통신 사업에 주력하는 AST SpaceMobile(+80%)과 글로벌스타(+23%)는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었다. SpaceX 상장이 우주 산업 전반의 성장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발사체 및 우주 인프라 관련 기업으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우주 테마 ETF는 보유 종목 구성과 집중도에 따라 가격 흐름과 변동성에 차이가 있었다. 순수 우주 종목에 집중 투자한 ETF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으나 고점 이후 낙폭도 포트폴리오가 분산된 ETF 대비 상대적으로 컸다. 항공·방산 등 인접 섹터를 함께 담은 ETF는 수익률이 작았던 대신 변동성도 제한적이었다. 다만 우주 종목 위주로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ETF는 집중도를 높인 ETF에 준하는 상승률을 유지하면서도 낙폭은 제한적이었다.

다만 상장 직전
Peer 그룹 내
자금 재배치 가능성 유의

Peer 종목들의 상승세는 5월 말까지 지속되었다. 지분 보유 종목 대비 상승 국면이 더 연장된 흐름으로, 상장 임박 시점까지 동종 섹터 내 대체 투자 수요가 이어진 결과다. 다만 SpaceX 상장을 앞두고 자금 재배치 수요가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5월 28일 미 증시 마감 후 발생한 Blue Origin의 New Glenn 로켓 폭발 사고가 트리거로 작용하며, 상장일까지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 이는 앞서 살펴본 메가 IPO 직전 Peer 그룹의 사전 약세 패턴과 부합하는 흐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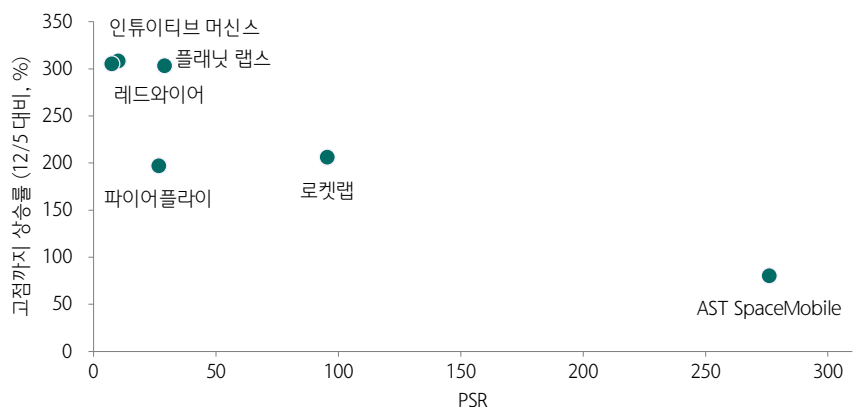
Anthropic과 OpenAI IPO에서도 이와 유사한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우주 섹터에서 산업 전반의 리레이팅 속에서도 직접적인 수혜 기대가 큰 종목으로 관심이 쏠렸던 것처럼, AI 역시 상장 초기에는 두 기업과 연관도가 높아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으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ETF 선택 시에는 편입 종목의 AI 연관도와 포트폴리오 집중도가 수익률과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러한 요인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도표 25. SpaceX Peer: 우주 산업 연관도에 따라 갈린 상승률

종목	고점까지 상승률	고점 시점	고점 이후 최대 낙폭
인튜이티브 머신스	308%	5/28 (D-15)	-44%
레드와이어	305%	5/28 (D-15)	-43%
플래닛 랩스	303%	5/28 (D-15)	-41%
로켓랩	206%	5/27 (D-16)	-32%
파이어플라이	197%	5/26 (D-17)	-46%
AST SpaceMobile	80%	5/28 (D-15)	-38%
글로벌스타	23%	5/28 (D-15)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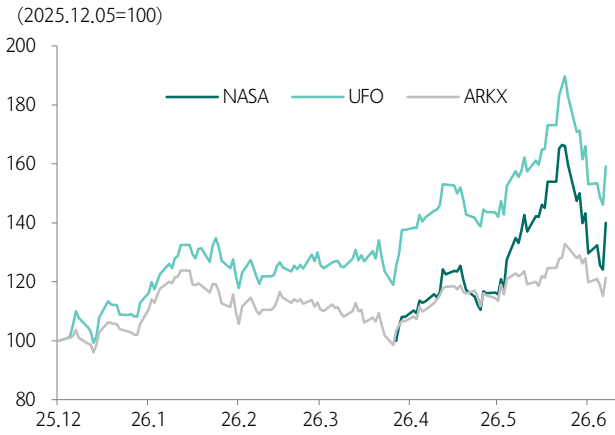
자료: FactSet, 하나증권

도표 26. 추가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작용한 AST SpaceMobi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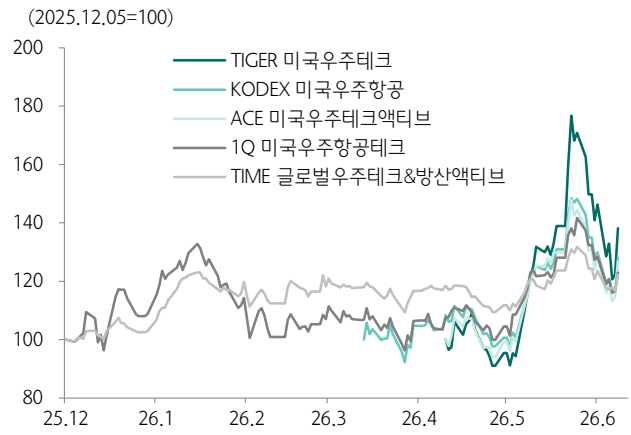
자료: FactSet, 하나증권

도표 27. 미국 상장 우주 테마 ETF 가격 흐름



주: 기준일 이후 상장된 ETF는 상장일을 기준으로 정규화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28. 국내 상장 우주 테마 ETF 가격 흐름



주: 기준일 이후 상장된 ETF는 상장일을 기준으로 정규화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29. 우주 테마 ETF별 SpaceX 상장 가시화 이후 상승률과 조정폭

구분	ETF	고점까지 상승률	고점 시점	고점 이후 최대 낙폭
우주 중심	UFO	89.7%	5/28 (D-15)	-22.9%
	NASA	66.4%	5/27 (D-16)	-25.4%
	ARKX	32.8%	5/28 (D-15)	-13.4%
	TIGER 미국우주테크	76.7%	5/27 (D-16)	-31.8%
	KODEX 미국우주항공	48.5%	5/27 (D-16)	-21.8%
	ACE 미국우주테크액티브	47.9%	5/27 (D-16)	-23.6%
	SOL 미국우주항공TOP10	47.1%	5/27 (D-16)	-27.6%
	1Q 미국우주항공테크	41.7%	5/29 (D-14)	-18.1%
항공방산포함	ITA	23.8%	3/2 (D-102)	-15.9%
	XAR	26.8%	1/16 (D-147)	-17.3%
	TIME 글로벌우주&방산액티브	31.8%	5/29 (D-14)	-11.4%
	WON 미국우주항공방산	24.3%	1/19 (D-144)	-15.1%

주: 신규 상장 ETF는 상장일 기준 정규화. 기준일 25.12.5인 ETF는 12.5 증가 = 100 기준. 고점까지 상승률은 기준일 대비 상승률. D-DAY는 SpaceX 상장일(6/12) 기준
 자료: 하나증권

2) 상장 후: 지수 편입 vs 락업 해제

상장 이후 시장의 관심은 향후 예정된 락업 해제 이벤트와 지수 편입 이벤트로 이동한다. 두 이벤트는 각각 내부자 물량 출회와 패시브 자금 유입이라는 상반된 수급 요인을 만들어낸다. 과거 메가 IPO 종목의 주가 흐름에서도 해당 이벤트들의 영향력이 관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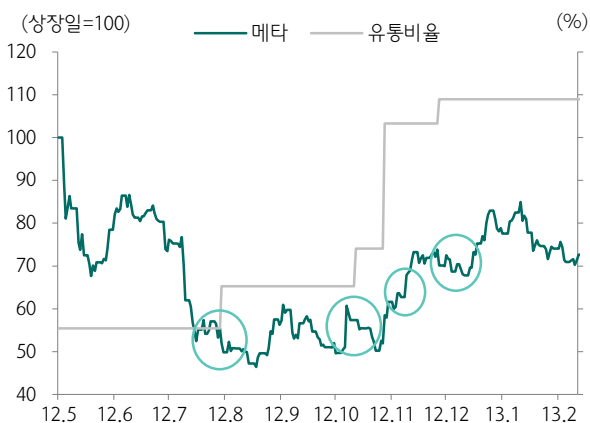
2010년대 이후 상장된 대표적인 대형 기술주인 Meta(구 Facebook)와 ARM의 사례를 보면, 상장 이후 주가 흐름과 무관하게 락업 해제 이벤트 전후로 단기 조정이 나타났다. Facebook은 공모가 대비 하락 구간에서, ARM은 공모가 대비 2배 이상 상승한 구간에서 각각 해제가 이루어졌으나, 해제 시점을 전후한 매도 압력은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SpaceX는 락업 해제 충격을 완화하는 구조로 설계

SpaceX는 이러한 락업 해제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락업 해제 물량과 일정을 분산시키는 구조를 택했다. 180일간 락업 대상 물량을 일정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해제하고, 일부 물량은 특정 조건과 연동하여 시장 소화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상장 후 6개월 시점까지의 누적 유통비율은 약 34~40%로, Meta(구 Facebook)의 동일 시점(34%)과 비슷한 수준의 물량이 풀리는 구조라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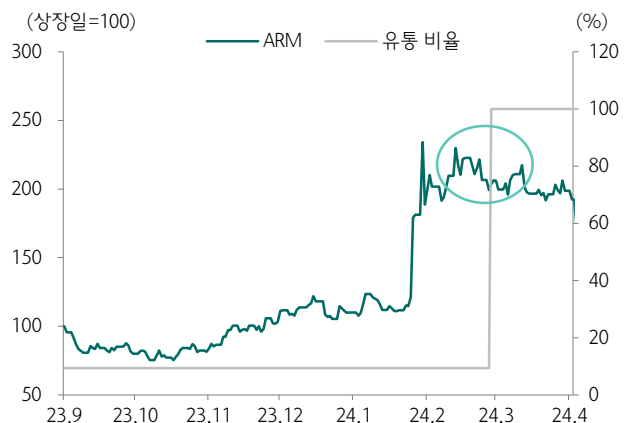
Anthropic과 OpenAI의 락업 해제 구조는 아직 S-1이 공개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지분 구조상, OpenAI는 Microsoft와 OpenAI Foundation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Anthropic은 Amazon과 Google이 합산하여 약 3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클라우드 인프라 계약 등 전략적 파트너십과 결합된 투자이므로, 상장 이후 매각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SpaceX 사례를 감안하면, Anthropic과 OpenAI도 락업 해제에 따른 수급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락업 해제 구조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도표 30. 락업 해제 이벤트마다 있었던 기간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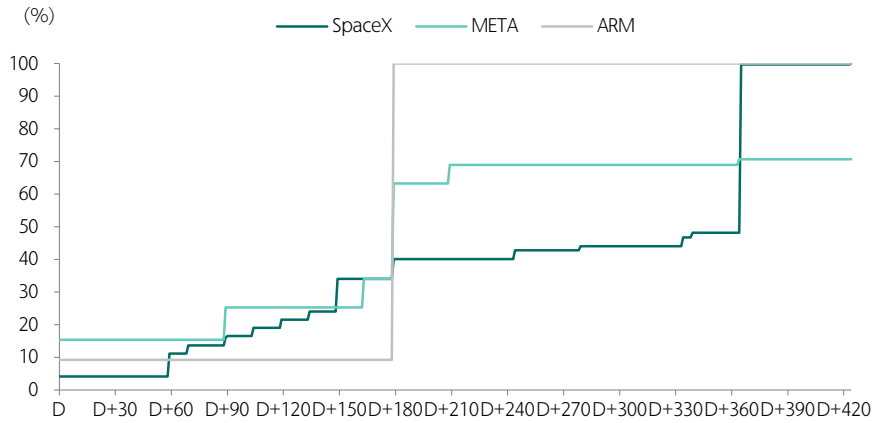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31. ARM도 마찬가지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32. SpaceX와 주요 기술주 IPO 이후 유통비율 추이



주: SpaceX 유통비율은 투자설명서 기준 락업 해제 물량 감안하여 추정
 자료: SpaceX,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33. SpaceX 락업 대상 주주 분류

유형	대상	해제 시점
180일 락업 그룹	임직원, 초기 주주	상장 후 180일간 순차적 해제
내부자	임원, 이사, 대주주	상장 후 91일부터(2026.09.10 Rule 144 요건)
주요 기관 투자자	Alphabet, 대형 VC 등	상장 후 약 8개월~1년 (2027.02~2027.08)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상장 후 1년 이후(2027.06.12)

자료: SpaceX, 하나증권

도표 34. SpaceX 락업 해제 일정 및 단계별 유통비율

단계	유형	해제일	해제 비율	유통비율	
상장	공모 투자자	2026년 06월 12일	4.9%	4.9%	
2Q26 실적 발표	180일 락업 그룹	2026년 7월	6.9%	11.8%	
조건부 해제		2026년 7월	3.5%	조건 미달성	조건 달성시
D+70				11.8%	15.3%
D+90			2026년 08월 20일	2.4%	14.2%
D+90		2026년 09월 09일	2.4%	16.6%	20.1%
D+91	내부자	2026년 09월 10일	0.4%	17.1%	20.5%
D+105	180일 락업 그룹 + 내부자	2026년 09월 24일	2.5%	19.6%	23.0%
D+120		2026년 10월 09일	2.5%	22.1%	25.5%
D+135		2026년 10월 24일	2.5%	24.6%	28.0%
3Q26 실적 발표		2026년 11월	9.9%	34.5%	37.9%
D+180		2026년 12월 08일	2.5~6.1%	40.5%	
4Q26 실적 발표	주요 기관 투자자	2027년 2월	2.7%	43.2%	
D+280		2027년 03월 18일	1.3%	44.5%	
1Q27 실적 발표		2027년 5월	2.7%	47.2%	
D+340		2027년 05월 17일	1.3%	48.5%	
D+366	일론 머스크	2027년 06월 12일	46.1%	100%	

주: 조건부 해제 물량은 조건 미충족 시 D+180에 잔여 물량과 함께 해제되며 해제 비율은 초과배정옵션 물량 포함 기준
 자료: SpaceX, 하나증권

패스트엔트리 도입으로
상장 한 달 이내
주요 지수 편입 완료될 예정

지수 편입 방식이 달라진 점도 주목해야 한다. 2026년 5월을 전후로 주요 지수 운영사들이 대형 IPO의 조기 편입을 위한 ‘Fast Entry’ 규정을 도입했다. SpaceX는 S&P 500을 제외한 주요 지수에 상장 후 한 달 이내에 편입이 완료된다.

상장 직후부터 패시브 추종 자금이 유입되면, 락업 해제에 따른 물량 부담을 일부 완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초기 유통비율이 4.9%(초과 배정 옵션 포함)에 불과하여 지수 내 실질적으로 차지할 비중은 제한적이며, 비중 상향은 락업 해제 후 분기별 리밸런싱을 통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리밸런싱에 반영되는 유통시총은 컷오프일을 기준으로 확정되므로, 락업 해제 시점과 실제 비중 상향 시점 사이에는 지수별로 1~4개월의 시차가 존재한다. 수급 이벤트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다.

2024년 12월 S&P DJI는
S&P500 지수 관련 추종 자금을
약 13조 달러로 추정

한편 가장 큰 추종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S&P 500의 편입은 기존의 수익성 요건 충족 이후에 이루어지므로, 이르면 2027년 하반기로 전망된다. 이 시점은 락업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된 이후이므로, Meta와 ARM의 사례에서 확인된 편입 효과가 락업 해제에 따른 매도 부담 없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다.

Nasdaq은 2025년 기준
나스닥100 추종 자산을
약 1.4조 달러로 추정

Anthropic과 OpenAI도 초기 유통비율이 SpaceX와 마찬가지로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Fast Entry’ 규정 적용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유사한 수급 구조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SpaceX를 통해 유사한 패턴을 사전에 가능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도표 35. 주요 지수의 리밸런싱 주기

지수	리밸런싱 주기	컷오프일
나스닥100	분기(3-6-9-12월 셋째주 금요일)	리밸런싱 월 전월 말
Russell	분기(3-9월 셋째주 금요일) 반기(6월 넷째주, 12월 둘째주 금요일)	1-4-7-10월 말일
CRSP	분기(3-6-9-12월 셋째주)	비공개
MSCI	반기(5-11월 월말), 분기(2-8월 월말)	리밸런싱 약 2개월 전

자료: MSCI, NASDAQ, Russell,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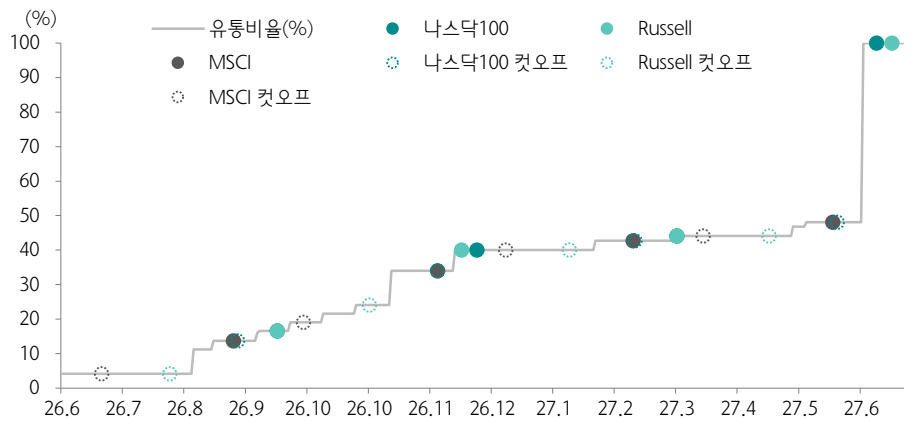
도표 36. 주요 지수의 ‘Fast Entry’ 요건

항목	나스닥100	MSCI
시가총액	나스닥100 구성종목 중 상위 40위 이내 (약 1,410억달러)	MSCI Standard Index 편입 커트라인의 1.8배 이상 (약 470억 달러)
유동 시가총액	없음	MSCI Standard Index 편입 커트라인의 0.9배 이상 (약 230억 달러)
유통비율	없음	15% 이상(단, 메가 IPO 예외 조항 존재)
거래소	나스닥 상장만 가능	NYSE, 나스닥 가능
평가 시점	상장 후 7거래일 증가	상장 후 1~2거래일 증가
편입 시점	상장 후 약 15거래일 이후 (5거래일 전 사전 공지)	상장 후 10거래일 이후
기존 종목 편출 여부	편출 없음 (연말 정기 리밸런싱까지 유지)	편출 없음 (다음 정기 리밸런싱까지 유지)

주: MSCI Standard Index 편입 커트라인을 약 260억 달러로 가정하여 추정. SpaceX는 IPO 시 유통비율 약 4.9%로 MSCI 일반 기준(FIF 15%) 미달이나 대형 IPO 예외 조항 적용되었음
자료: MSCI, NASDAQ,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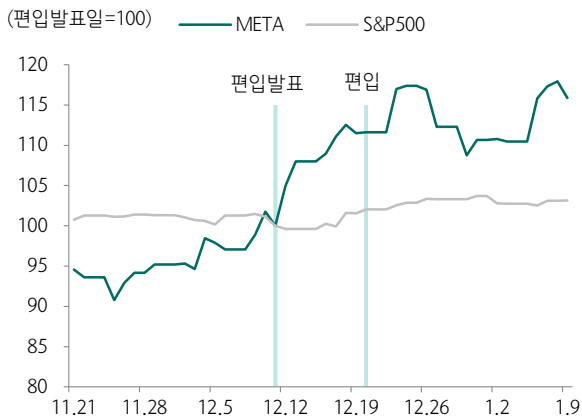
도표 37. 락업 해제 물량이 반영되는 시점의 확인이 필요

첫 번째 락업 해제 시점과
해당 물량이 지수에
반영되는 시점의
시차는 약 3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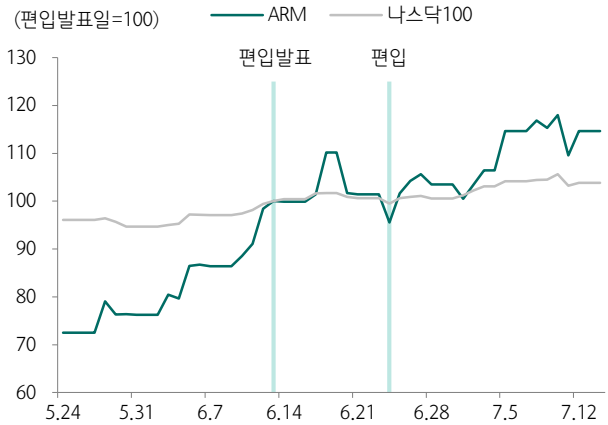
주: 각 지수 운영 방법론을 참조한 추정일
자료: MSCI, Nasdaq, Russell, 하나증권

도표 38. Meta S&P500 편입 전후 추가 흐름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39. ARM 나스닥100 편입 전후 추가 흐름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3. ETF로 접근하는 메가 IPO

메가 IPO 이벤트를 ETF로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상장 전에는 해당 기업의 지분을 보유한 종목이나 Peer 종목 비중이 높은 테마 ETF를 통해 간접적으로 IPO 기대감을 반영할 수 있다.

상장 후에는 'Fast Entry' 규정에 따라 해당 기업이 주요 지수 및 관련 ETF에 빠르게 편입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테마 ETF는 자금 재배치에 따른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반면, 대형주 비중이 높은 지수 ETF는 해당 종목이 직접 편입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이벤트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락업 해제에 따른 유통비율 확대가 ETF 내 비중에 반영되는 시점은 리밸런싱 시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세 기업 모두 조달 자금의 상당 부분을 AI 인프라 확충에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AI 밸류체인 내 인프라 영역에 해당하는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및 전력 인프라 관련 ETF 역시 수혜가 가능한 영역이다.

1) SpaceX

SpaceX의 나스닥100 초기 편입 비중은 1% 초반

SpaceX는 현재 상장 직후 락업 해제와 지수 편입이라는 두 가지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투자 가능한 ETF는 SpaceX를 직접 편입한 우주 테마 ETF와 SpaceX가 편입될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있다.

우주 테마 ETF는 SpaceX 상장 직전 우주 관련 종목 내 자금 이동으로 높은 변동성을 시현하였다. SpaceX 상장 이후에는 포트폴리오 내 SpaceX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SpaceX 주가 변동이 ETF 수익률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다.

반면 나스닥 추종 ETF는 SpaceX 편입 시 기대되는 수급 효과를 간접적으로 반영하면서도, 기존 대형 기술주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이벤트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 SpaceX의 나스닥100 편입은 7월 6일로 확정되어 있다. 편입 비중은 유통주식 기준 시가 총액에 따라 결정되는데, 나스닥의 신설 규정에 따르면 유통주식비율이 33.3% 미만인 종목은 실제 유통시가총액의 최대 3배까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초과배정옵션이 반영된 SpaceX의 현재 유통비율(4.9%)은 해당 규정 적용 시 약 14.7%의 유통비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산출한 SpaceX의 나스닥100 편입 비중은 약 1%대 초반으로 추정되며, 지수 내 20위권 전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락업 해제와 리밸런싱 시차를 감안한 비중 조정 전략 필요

락업 해제에 따른 단기 가격 조정이 나타날 경우, 컷오프일과 리밸런싱 시점을 감안하여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검토할 수 있다. 락업 해제에 따른 유통물량 확대와 이를 반영하는 지수 리밸런싱 사이에는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스닥100의 컷오프일이 8월 말임을 감안하면, SpaceX의 2분기 실적 발표 후 해제되는 물량은 9월 리밸런싱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으나, 해제 시점부터 비중 상향까지 약 한 달의 시차가 발생한다. Russell과 MSCI는 컷오프일이 각각 7월 말, 6월 말로 앞서 있어 해당 해제분이 반영되지 않는다. 반면 12월 전량 해제 시점에서는 나스닥100 리밸런싱까지의 시차가 10일 이내로, 패시브 비중 상향에 따른 매수 수요가 매도 압력을 상쇄할 수 있는 구간으로 판단된다.

미국 상장 우주 테마 ETF는 대표적으로 ARKX, UFO와 SpaceX IPO를 앞두고 비교적 최근에 상장된 MARS, NASA를 꼽을 수 있다. 해당 ETF들 모두 SpaceX를 포트폴리오 내 최상위 비중으로 편입하고 있으나 편입 비중과 운용 방식, 포트폴리오 구성 등에서 SpaceX 노출도가 달라진다.

국내에서도 다수의 ETF가 SpaceX를 편입하고 있다. 6월 19일 기준 SpaceX를 5% 이상 비중으로 편입한 ETF는 6개 종목으로 모두 우주 테마 ETF이며, 이들은 상장 후 변동성이 컸던 만큼 편입 시점에 따라 수익률이 엇갈렸다. 향후 유통 물량 확대에 따른 비중 조정 가능성과 함께, 패시브 ETF 중 기초지수 리밸런싱 주기에 따라 7월 초 SpaceX 편입을 앞두고 있는 1Q 미국우주항공테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수 추종 ETF 중에서는 나스닥종합지수와 나스닥100을 기초지수로 하는 액티브 ETF들이 SpaceX를 편입하고 있다. 패시브 ETF의 경우 나스닥100 추종 상품은 지수 편입 시점(7월 6일)에 맞춰 편입할 예정이다. 지수 내 초기 편입 비중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우주 테마 ETF 대비 SpaceX 노출 정도는 제한적이다.

도표 40. 미국 상장 우주 테마 ETF

종목코드	투자포인트	상장일	AUM (십억 달러)	보수	운용방식
Tema Space Innovators ETF					
NASA	<ul style="list-style-type: none"> SpaceX 상장 이벤트에 맞춰 2026년 3월 출시된 액티브 ETF, SPV 구조를 통해 SpaceX를 상장 전에 보유했던 영향으로 상장 가시화 단계에서 대규모 자금이 집중 유입되며 단기간에 자산 규모가 2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 SpaceX 노출도가 높은 수준, SPV 보유와 상장 후 직접 매수, SpaceX 지분 보유 종목인 SATS 편입을 통한 간접 노출이 결합된 구조. 다만 SPV 비중은 SpaceX 상장 후 6개월간 매도가 제한된다는 점이 유의점 	2026.03.30	2.36	0.75%	액티브
구성종목: SpaceX 10.0%, 에코스타 10.2%, 로켓랩 10.0%, AST 스페이스모바일 5.6%, 인튜이티브 머신스 4.5%					
ARK Space & Defense Innovation ETF					
ARKX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주, 항공, 방산 뿐만 아니라 로봇, AI, 우주 관련 인프라 등 혁신 기술을 다양하게 편입, 우주 섹터 집중도는 낮으나 우주 테마 변동성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구조 	2021.03.30	1.08	0.75%	액티브
구성종목: SpaceX 9.1%, 로켓랩 6.7%, L3해리스 6.5%, 크라토스 5.8%, 디어 5.6%					
Procure Space ETF					
UFO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우주 테마 ETF 중 가장 긴 운용 트랙을 보유한 패시브 ETF, VettaFi Space Index를 추종하며 유통시가총액에 우주 관련 매출 비율을 곱하여 가중치를 산정하는 구조 총 60개의 종목을 편입하고 있으며 상위 10개 종목의 편입비가 48%로 집중도가 높은 편. 패시브 구조로 SpaceX 비중을 최대 1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전망 	2019.04.11	0.94	0.75%	패시브
구성종목: SpaceX 5.2%, 로켓랩 5.2%, AST 스페이스모바일 5.1%, 에코스타 4.8%, 가민 4.8%					
Roundhill Space & Technology ETF					
MA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SpaceX 편입 비중이 21.5%로 SpaceX를 편입한 ETF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31개 종목 중 상위 15개 편입 비중이 80%에 달하는 압축적 포트폴리오 구성 집중도가 높은 만큼 SpaceX 주가 변동의 영향이 크게 반영되는 구조이며 다만 타 우주 ETF 대비 순자산이 작은 점에 유의 	2026.03.05	0.09	0.75%	액티브
구성종목: SpaceX 21.5%, 로켓랩 11.6%, AST 스페이스모바일 8.1%, 글로벌스타 4.4%, 플래닛랩스 4.2%					

주: 2026년 6월 19일 기준
자료: FactSet, 하나증권

도표 41. 국내 상장 우주 테마 ETF

종목코드	투자포인트	상장일	AUM(억원)	보수	운용방식
TIGER 미국우주테크					
0183J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수 우주 기업을 집중 편입한 ETF로 국내 우주 테마 ETF 중 순자산 규모 1위 Akros U.S. Space Tech 지수를 추종하며 업스트림(우주 인프라 구축) 70%, 다운스트림(우주 서비스) 30%로 가중치 부여. 정기 리밸런싱은 연 4회 (3/6/9/12월) 진행 	2026.04.14	21,650	0.49%	패시브
구성종목: SpaceX 25.3%, 로켓랩 15.5%, 레드와이어 15.3%, 인튜이티브 머신스 14.0%, 에코스타 6.8%					
KODEX 미국우주항공					
0167Z0	<ul style="list-style-type: none"> iSelect 미국우주항공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로 발사 서비스, 위성통신, 우주 인프라, 항공우주 등 우주 산업 전반에 폭넓게 투자 시가총액 가중 방식(50%)과 키워드 스코어 비중(50%)을 결합해 종목별 비중을 산출하며 단일 종목 최대 편입 비중은 25%로 제한 	2026.03.17	6,586	0.57%	패시브
구성종목: SpaceX 24.5%, 로켓랩 17.2%, 인튜이티브 머신스 14.4%, AST 스페이스모바일 13.4%, 플래닛랩스 8.4%					
1Q 미국우주항공테크					
0131V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주 및 항공 관련 대표 기업 12개에 집중 투자하는 ETF로 UAM 대표 기업 JOBY와 GE 에어로스페이스-Palantir 등을 높은 비중으로 편입한 점이 특징. 최근 우주 테마 ETF 약세 속에서 낙폭이 제한된 흐름 현재 SpaceX 미편입 상태로 정기 리밸런싱 일정한 6월 마지막 영업일 전 후 편입을 검토 중 	2025.11.25	5,366	0.49%	패시브
구성종목: 로켓랩 23.3%, 조비 에비에이션 14.9%, GE 에어로스페이스 11.0%, 팔란티어 7.7%, 베타 테크놀로지스 7.6%					
TIME 글로벌우주테크&방산액티브					
478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주와 방산 테마를 결합한 액티브 ETF 30개 이상 종목으로 구성된 분산형 구조로 SpaceX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단기 변동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 구조 	2024.04.23	3,238	0.8%	액티브
구성종목: GE 에어로스페이스 9.0%, RTX 6.9%, 허니웰 6.8%, SpaceX 6.4%, 하우멧 에어로스페이스 5.5%					
ACE 미국우주테크액티브					
0180V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순수 우주 테마 ETF 중 유일한 액티브 운용 ETF로 상위 1~4위 종목 비중 합산 50% + 나머지 종목 동일 비중 50%로 배분하는 집중-분산 결합 구조 현재 SpaceX 비중을 30% 수준으로 가장 높게 편입 	2026.04.14	3,009	0.80%	액티브
구성종목: SpaceX 31.2%, 로켓랩 15.2%, MDA 스페이스 4.6%, 요크 스페이스 시스템 4.5%, 글로벌스타 4.3%					
SOL 미국우주항공TOP10					
0181L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에 상장된 주요 우주 기업 10개를 선별하여 집중 편입하는 ETF SpaceX 지분을 보유한 EchoStar를 8.9% 비중으로 편입해 SpaceX에 대한 간접 노출까지 함께 확보한 구조 	2026.04.21	1,030	0.47%	패시브
구성종목: SpaceX 27.8%, 로켓랩 22.4%, AST 스페이스모바일 10.9%, 에코스타 8.9%, 글로벌스타 7.2%					
KWOOOM 미국우주데이터센터인프라					
0207Z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주 발사체 관련 기업뿐 아니라 반도체-에너지 등 우주 데이터센터 인프라 관련 기업까지 폭넓게 편입하는 ETF SpaceX-로켓랩 합산 비중이 약 50% 수준이며 NVIDIA-Alphabet-Amazon 등 AI 인프라 빅테크도 일부 편입해 우주 테마 변동성을 완화한 구조 	2026.06.16	372	0.49%	패시브
구성종목: SpaceX 27.0%, 로켓랩 24.6%, 엔비디아 6.5%, 알파벳 6.5%, 인텔 6.0%					

주: 2026년 6월 19일 기준

자료: Quantwise, Bloomberg, 하나증권

2) Anthropic & OpenAI

지분 가치 재평가
가능성이 높은
SK텔레콤, Softbank Group

Anthropic과 OpenAI는 AI 밸류체인 내에서 파운데이션 모델 기업이라는 동일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관련 테마 ETF도 유사한 접근이 가능하다. Anthropic이 OpenAI보다 먼저 상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Anthropic 상장 과정에서 OpenAI IPO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지분 보유 구조에서는 양사 모두 Amazon·NVIDIA·Microsoft 등 주요 빅테크 기업과 전략적 지분 관계에 있어 투자자 구성이 유사하다. 지분 보유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은 Anthropic의 SK텔레콤, OpenAI의 SoftBank Group이다. 해당 종목 모두 시가총액 대비 보유 지분가치 비율이 여타 지분 보유 종목 대비 높아, 지분 재평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내 상장 ETF 중 SK텔레콤을 5% 이상 비중으로 편입하고 있는 ETF로는 TIGER 경기방어, HANARO Fn5G산업, KODEX 코리아소버린시가 있다. 이 중 KODEX 코리아소버린시는 AI 관련 키워드와 높은 연관성을 보이는 종목을 선별하여 투자하는 구조로, 최근 Anthropic의 최신 모델인 Fable 5의 해외 사용 제한 이슈로 소버린 AI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IPO 이벤트와 관련 테마 모멘텀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

SoftBank Group은 시가총액 대비 OpenAI 노출도가 약 44%로 전체 지분 보유 종목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과거 ARM 지분 투자 후 IPO 성공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경험이 있어, OpenAI 상장 시에도 지분 가치 재평가에 따른 추가 모멘텀이 부각될 것으로 기대된다. SoftBank Group은 일본 주요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통해 간접 투자가 가능하며, 국내 상장 ETF로는 TIGER 일본니케이225, ACE 일본NIKKEI225 등이 대표적이다.

Amazon과 Google은 시가총액 대비 지분가치 비율은 낮으나, Anthropic과 OpenAI 지분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양사 IPO 이벤트에 함께 노출되는 종목이다. 두 종목을 함께 편입하고 있는 국내 상장 ETF로는 KODEX 미국시테크TOP10, TIGER 미국시빅테크10, ACE 미국빅테크TOP7 Plus, SOL 미국테크TOP10 등이 있으며, 해당 ETF 내 Amazon과 Google의 합산 비중은 모두 20%를 상회한다.

Anthropic과 OpenAI 관련 테마를 선별함에 있어서는 SpaceX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SpaceX의 경우에는 우주 테마가 소수의 종목과 ETF에 한정되어 있어 IPO 이벤트의 영향력이 집중되는 모습이었다. AI는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다양한 종목군과 ETF가 존재하고, 상장사 중에서 두 기업의 직접적인 경쟁사를 특정하기 어려운 구조로 상장 기대감이 반영되는 경로가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Anthropic 상장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진 5월 말에는 C3.ai, Palantir 등 개별 AI 종목과 양사의 편입 가능성이 높은 소프트웨어 섹터 ETF(IGV, XSW)가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는 지분가치 비율이 높은 종목 중심의 접근이 유효하며, IPO가 본격화되면서 Peer 그룹이 구체화되는 시기에 관련 ETF의 선택 범위를 좁혀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IPO가 진행되는 단계별 분기점에 따라 이벤트의 영향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대상이 달라진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SpaceX의 경우, 지분 보유 종목의 고점은 투자 설명서를 통해 재무 지표가 공개되면서 재평가가 마무리되며 형성되었고, Peer 종목은 로드쇼 개시와 함께 청약 자금 확보 수요가 본격화되면서 차익 실현 압력이 확대되는 시점에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Anthropic과 OpenAI 역시 동일한 절차를 거치는 만큼 각 분기점에서 유사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Anthropic의 경우 10월 말 상장을 가정하면 9월 말부터 관련 종목들의 주가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표 42. SpaceX 상장 타임라인으로 가능해보는 Anthropic 상장 타임라인

이벤트	날짜	상장일 대비	Anthropic 10월 말 상장 가정 시
비공개 S-1 제출	2026.04.01	D-72	2026.06.01
S-1 공개	2026.05.20	D-23	10월 초
지분 보유 종목 고점	5월 초~중순	D-25 ~ D-37	9월 말~10월 초
Peer 하락 시작	5월 말	D-15 ~ D-20	10월 중순
공모가 확정	2026.06.11	D-1	10월 말
상장	2026.06.12	D-day	10월 말

자료: 하나증권

도표 43. Anthropic, OpenAI 지분 보유 종목 관련 ETF

종목코드	투자포인트	상장일	AUM (억원)	보수	운용방식
KODEX 코리아소버린SI					
0115E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차원의 AI 산업 육성 및 활성화 관련 프로젝트의 중심에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하며 AI 인프라까지 투자하는 ETF로 소버린 AI 테마 부각 시 수혜 기대 · Anthropic 지분 보유 종목인 SK텔레콤이 높은 비중으로 편입되어 있음 	2025.10.21	869	0.45%	패시브
구성종목: 네이버 22.6%, SK텔레콤 7.1%, LG씨엔에스 6.1%, SK하이닉스 5.5%, NHN 5.0%, 삼성전자 4.7%					
TIGER 일본니케이225					
2411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대형주 지수인 니케이225를 추종하는 ETF로 지수 내 개별 종목 비중이 그대로 반영되는 구조 	2016.03.31	4,027	0.35%	패시브
구성종목: Advantest 11.2%, Tokyo Electron 10.6%, Fast Retailing 9.4%, SoftBank Group 8.0%, Kioxia 3.1%					
ACE 일본 NIKKEI225(H)					
2387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에 상장된 ETF와 선물도 함께 활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 · 환헤지 상품 	2016.03.03	414	0.30%	패시브
구성종목: Fast Retailing 8.9%, Advantest 8.3%, Tokyo Electron 7.8%, SoftBank Group 5.9%					
KODEX 미국시테크TOP10					
4855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관련 키워드와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AI 관련 종목을 선별하며 유동시총 70%와 LLM 기반 AI 유사도 스코어 30%를 혼합하여 비중을 결정. AI 연관성이 높은 종목에 추가 비중을 부여하는 구조 · Amazon과 Alphabet 합산 비중이 26.3%로 Anthropic, OpenAI 등 지분 보유 종목 노출도가 높음 	2024.06.25	3,357	0.30%	패시브
구성종목: NVIDIA 19.9%, Alphabet 18.0%, Microsoft 12.0%, Meta 9.6%, Broadcom 9.5%, Amazon 8.3%, TSMC 7.2%					
TIGER 미국시빅테크10					
4900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DEX 미국시테크TOP10와 유사한 방식으로 키워드를 기반으로 AI 관련 종목 선별 후 정량적인 요소들을 반영하여 2차 필터링 · 종목별 비중은 유동시총 가중 방식으로 결정되며 종목당 최대 20% 상한 제한 	2024.08.27	2,290	0.30%	패시브
구성종목: NVIDIA 19.7%, Apple 17.5%, Alphabet 14.8%, Microsoft 11.3%, Amazon 9.5%, Broadcom 7.7%, TSMC 7.3%					
ACE 미국빅테크TOP7 Plus					
4655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스닥 빅테크 상위 7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ETF 	2023.09.12	10,644	0.30%	패시브
구성종목: Alphabet 15.6%, NVIDIA 15.5%, Apple 15.4%, Amazon 14.1%, Microsoft 13.7%, Broadcom 10.4%, Meta 8.3%					
SOL 미국테크TOP10					
4811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lactive US Tech TOP 10 Custom 지수를 추종하며 나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을 편입하는 ETF · 보수가 0.05%로 최저 수준인 점이 특징 	2024.05.21	3,092	0.05%	패시브
구성종목: NVIDIA 19.1%, Apple 17.4%, Alphabet 17.3%, Microsoft 10.8%, Amazon 9.5%, Broadcom 7.6%, Meta 5.7%					

주: 2026년 6월 19일 기준

자료: Quantwise, Bloomberg, 하나증권